

1970년도

제 16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1970년 2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 교육회관 대강당

안건 : 1. 개회식

2. 제2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3. 1969년도 사업 실적 보고
4. 1969년도 결산 및 회계 감사 보고
5. 1970년도 사업 계획 보고
6. 1970년도 예산 보고
7. 기타

1. 개회식

사회(사무국장) : 한국도서관협회 제 16차 정기총회 개회 선언.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불창,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동지자에 대한 묵념, 국민교육현장 낭독(이창세 도협 전무이사).

개회사 : 강주진 회장(별지 참조)

격려사 : 문교부장관 홍종철(김도창 문교부차관 대독)
(별지 참조)

축사 : 김경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태시 (대한교육연합회 사무총장.)

정진숙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별지 참조)

2. 제2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본회 강주진 회장으로부터 별면과 같이 시상된다.

성원보고 : 단체회원 465명, 개인회원 426명 총 891명

총 단체회원 178명, 개인회원 97명, 위임 82명 총 357명으로 성원법을 최근만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하다(10시 45분).

의장(강주진) : 전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 전회의록 낭독하다.

—이의 없이 통과 되다—

3. 1969년도 사업 실적 보고

의장(강주진) : 다음은 1969년도 사업 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 배부된 1969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 하다.

1969년도에 총 52회의 제회의와 보조사업 중 독서주간 행사(제 15회) 완료, 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일람" 1,000부 발간 완료, "선정도서목록" III(1967~1968) 1,000부 발간 완료 및 69년 1년 중에 진행된 국내 간행 양서 890종을 선정하여 월보에 게재, 도서관학총서 간행사업 중 4책 각 1,000부 총 4,000부 발간 완료, 기관지 "도협월보" 10책 총 20,000부 발간 완료, 서지사업회 1차 사업으로 "구한국고문서해제목록" 정리 완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 개최 성료,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제 8회 전국판종별 도서관대회를 지역별(서울, 춘천, 청주)로 개최 완료, 배부함사업 총 97종, 28,277권 수집 배부 완료, 지구 협의회 및 부회 육성사업, 표창사업 등을 완료하고 한국도서관학 교육실태조사, 장학회 설립 추진 및 도서관인 해외훈련사업 등 특수사업과 도서관인 인명록

발간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외국도서판계 시찰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강주진) : 지금 보고드린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이의 없이 통과 시키다—

4. 1969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의장(강주진) : 그러면 다음은 1969년도 결산 및 회계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하다(별장 결산서 참조).

김종희(감사) : 본협회는 매년 주무부처를 비롯해서 여러 감독청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문교부와 시교육위원회 등의 감사가 있었으므로 1969년도 자체 감사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중빙서류의 미비라든지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이 있었으나 즉시 지적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여 모든 서류와 장부에 차오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계수적인 보고는 결산보고에서 자세히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만 보고함).

의장(강주진) : 1969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이 동의 통과 되다—

5. 1970년도 사업계획 보고

의장(강주진) : 다음은 1970년도 사업계획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조사업〉

- ① 독서주간행사
- ② 도서관통계사업
- ③ 도협월보 발행
- ④ 한국서지사업추진
- ⑤ 도서관학서 및 번역서 발간 사업
- ⑥ 선정도서사업
- ⑦ 국제교류사업

〈자체사업〉

- ① 전국도서관대회
- ② 배부함사업
- ③ 지구협의회 및 부회육성사업
- ④ 표창사업
- ⑤ 위원회사업
- ⑥ 자료실 운영
- ⑦ 출판물 보급사업
- ⑧ 적립금

⑨ 기타사업

의장(강주진) : 지금 설명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장노회신학대학도서관) : 협회 실무자들을 위한 자격취득 강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도서관법이 제정되기 전에 본협회에서 실무자 강습회를 계속해 왔었으나 4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서 졸업생이 배출됨으로 본협회는 강습회를 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 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강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장노회신학대학도서관) : 과거에 협회에서 자격 취득 강습회를 실시해서 문교부장관의 이수증을 받고도 아직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강습을 실시해서라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도서관법이 공포된 후 3년이 지나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만 이 시행령이 나온 후 과거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준사서자격을 줄수있는 경과 조치에 따라 준사서자격증은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발급을 받지 못했으나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사업중 강습에 관한 것은 정사서자격취득이 되도록 강습했습니다. 그후 춘사서자격증 발급이 늦어 준사서자격증 소지후 2년후에 자격증을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문교부에서 담당관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본 사무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 문교부장관이 수여한 이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발급사무를 시·도교육위원회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국방대학원도서관장) :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도서관과 이번에 새로 결정이 된줄 알닙니다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만 사서직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의장(강주진) : 이문제는 우리 도서관인의 숙원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고 이창세 관장께서 적극 애써서 이루어진 결과이겠습니다. 이 문제를 진급 동의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원 박수로 결의 채택 하다—

최성락(서울교육대학) : 그 밖에도 전의사항이 많으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

교부에 도서관담당부서의 설치나 혹은 도서관담당관을 두도록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 담당관이 도서관도 담당하도록 사무국이 노력해 줄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의장(강주진) : 문교부에 도서관 담당부서나 담당관을 두는 것을 전의하자는 말씀인것 같읍니다.

최근만(사무국장) : 정부의 직제개편 및 담당관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기구를 축소하려는데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사무국에서 열심히 하고 뜻하는 대에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전체의 힘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예문에 견설적인 면에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보다 더 향상 발전 할 수 있는 가를 모색하고 중지를 모아서 해결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의장(강주진) : 그러면 좀 전에 채택된 수당문제와 같이 이 문제도 전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 문교부에 도서관 담당관을 두는 것이 불가능할 때 시청각 및 도서관 담당관을 두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딘가 약체인 듯한 인상을 주니 빼었으면 합니다.

최성락(서울교육대학) : 지금도 문교부 사회교육과에 도서관 담당자가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 행정을 관장할 부서나 담당관제도를 뒤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강주진) : 문교부 기구안에 도서관 행정을 전담할 기구나 담당관을 두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 종회에서 내용을 전

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사무국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검토 했으면 합니다.

의장(강주진) : 그러면 두가지 전의안을 내는데 그 문안이나 방법 등은 사무국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동 만장일치 박수로 결의 하다—

6. 1970년도 예산보고

최근만(사무국장) :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하다(행평의원회의록 참조).

의장(강주진) : 지금 보고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 하다—

7. 기타

의장(강주진) :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읍니다 그외에 우리 관계(館界) 발전을 위해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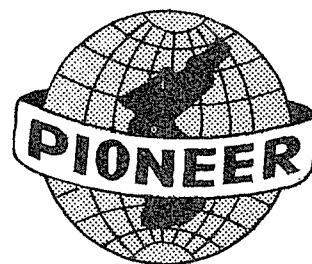
최성락(서울교육대학) : 아까 전의 채택한 일을 사무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꼭 문교부에 담당관이 배치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장(강주진) : 여러 회원들께서 긴시간 성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고, 견설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협회의 살림이 점점 커가고 따라서 일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읍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된 일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70

海外學術雑誌豫約案内

- ◎ 海外學術雑誌豫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雑誌豫約購讀에 關한限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賣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을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賣下께서 아직도 페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以外의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총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区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號
電話 (74) 4855 · (75) 4155